

전권회의와 에볼라에 관한 ITU 사무총장 성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사회 및 유엔기구들과 함께 에볼라바이러스출혈열 발병사태를 긴밀히 주시해 왔으며, 전세계와 함께 에볼라 발병국 대표단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ITU는 유엔체제 내 조정 기구인 유엔에볼라긴급대응단(UNMEER)뿐만 아니라 에볼라 발병국 당국, 부산시 당국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고 있으며, 부산시 당국 역시 가능성이 낮은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해 전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ITU는 유엔기구들과 함께 협력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모두 따르고 있으며, 에볼라 발병 지역을 떠나 한국을 방문하는 대표단과 관련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출혈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수적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볼라 의심사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에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세계 의료종사자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내원한 사람의 여행기록에 대해 질문하고,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들은 자격을 갖춘 에볼라바이러스출혈열 진단 실험실등을 포함해 에볼라 의심사례를 파악,조사, 관리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에볼라 감염 지역에서 출발하여 국제 공항이나 주요 교통허브지역에 도착하여 설명되지 않는 열이나 다른 증상들을 보이는 여행자들을 파악하고 치료할 역량이 있어야합니다.

곧 열리는 ITU 전권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은 수년간 ITU 사무총국과 함께 막후에서 성실히 회의를 준비해 왔으며, ITU와 한국은 미래 지식사회의 기초를 다질 의미 있는 고위급 회담과 흥미로운 특별행사 프로그램을 기대하고있습니다.

ITU의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유엔 지침에 따라 이번 이슈를 다루고 모든 참가자와 주최국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등 에볼라 발병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ITU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이 세 국가에서 전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ITU는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의 현 발병지역 너머로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ITU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주최국 한국이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전권회의를 잘 감독할 역량이 있다고 전적으로 확신하며, 마찬가지로 한국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당국이 마련한 행동계획도 확신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당국이 실시하는 모든 특별 조치는 우리 모두의 보호를 위해서라는 점을 인식하며, 모든 대표단이 전적으로 협력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